

韓國 政治指導者들의 性格과 리더쉽에 관한 研究

- 李承晩大統領과 朴正熙大統領을 中心으로 -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提出者 金 貞 姬

指導教授 高 性 俊

1986年 月 日

金貞姬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主 審 ①

副 審 ①

副 審 ①

1986年 月 日

目 次

第一章 序論	2
第一節 問題的提起	2
第二節 研究方法 및 範圍	3
第二章 政治指導者の性格과 리더십 類型	5
第一節 民主主義的 性格과 리더십	5
第二節 全體主義的 性格과 리더십	6
第三節 權威主義的 性格과 리더십	9
第四節 官僚主義的 性格과 리더십	11
第三章 李承晩大統領의 性格과 리더십	12
第一節 李大統領의 性格	12
1. 家庭環境 및 成長過程	12
2. 李大統領의 世界觀	14
第二節 리더십	14
1. 政策定向	14
2. 統治展開過程	15
3. 統治스타일	20
第四章 朴正熙大統領의 性格과 리더십	24
第一節 朴大統領의 性格	24
1. 家庭環境 및 成長過程	24
2. 朴大統領의 世界觀	25
第二節 리더십	26
1. 政策定向	26
2. 統治展開過程	27
3. 統治스타일	30
第五章 結論	34
參考文獻	36
英文抄錄	38

第一章 序 論

第一節 問題의 提起

어떠한 집단적인 일도 지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이는 추진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어떠한 정치체제도 지도자 없이는 발전하지 못한다.

물론 우리는 한 국가의 정치발전을 결정지우는 요인으로 그 국가가 처해있는 국제관계와 국내정치 세력관계, 정치문화, 정치행정 엘리트의 충원유형, 경제상황, 사회구조와 문화형태등이 서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여러 요인중에서도 그 국가의 정치 지도자의 영향은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즉 지도자가 어떠한 성격과 가치관 내지는 세계관 그리고 정치이념 정향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국가 정치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질 것인가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 국가에 있어서 지도자의 중요성, 특히 그 지도자가 발휘하는 리더십은 그 지도자의 성격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도자의 성격을 형성한 사회배경, 생애경력, 성격특징 등을 검토하여 보는데서 연구는 시도되었다.

리더십의 문제는 공식조직 비공식조직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집단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로서 주로 심리학자, 정치학자들의 주요 연구영역의 하나로 존재하여 왔다. 그런데 각기 연구하는 입장과 관점이 상이함에 따라 리더십의 개념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으며 이론도 분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다 할 것이다. 첫째, 지도자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경우 둘째, 지도자가 속해있는 집단에 초점을 두는 경우 셋째, 지도자와 집단구성원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는 경우 넷째, 집단의 사회적 상황조건에 초점을 두는 경우등이다.¹⁾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리더십은 주로 지도자 개인이 갖고있는 퍼스낼리티의 특성과의 관련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런 시각에서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피고스(P. Pigors)가 규정했듯이 “리더십이란 특정한 퍼스낼리티의 소유자가 공통의 문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그의 의지 감정 및 통찰력 등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고 다스리는 특성”²⁾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리더십의 개념에 못지 않게 그 유형도 실로 다양하다. 물론 그것은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른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스톡딜(R. Stogdill)은 1915년부터

1) 韓貞一, 「한국정치발전론」(서울: 전예원, 1982), p. 268.

2) P. Pigors, *Leadership and Domin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53), p. 12.

1951년까지 16명의 학자들의 저서들을 조사하여 리더십의 유형을 전제형, 설득형, 민주형, 지적형, 관리형, 대표형등으로 요약하였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초점상 여기에서는 라스웰(H. Lasswell)의 유형분류를 토대로 하고자 한다. 그는 저서 “정신병리학과 정치학”에서 지도자가 그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정치적 퍼스넬리티형으로서 선동가와 행정가라는 두 궤를 분석하고 있다.⁴⁾ 그후 라스웰은 다른 저서 “권력과 인간”에서는 선동가의 성격형으로 “극화적성격”을, 행정가의 성격형으로 “강박적성격”을, 제 3의 성격형으로 “냉철적성격”을 각각 제시해주고 있다.⁵⁾ 그런데 현대정치에 있어서의 리더십은 크게 “민주주의적리더십”, “전체주의적 리더십”, “권위주의적 리더십”, “관료주의적 리더십”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퍼스넬리티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를 “민주주의적 성격과 리더십”, “전체주의적 성격과 리더십”, “권위주의적 성격과 리더십”, “관료주의적 성격과 리더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의 역대 정치지도자들은 나름대로 국가건설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실제 그들은 어떠한 성격과 가치관 내지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 리더십으로 구현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것이 당시 그들의 통치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구현 되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第二節 研究方法 및 範圍

우선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주로 既存의 연구자료를 통한 「文獻研究」를 중심으로 했으며 방법론적인 입장은 「歷史記述的 接近」과 「比較分析」的이다. 본 연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여러 대통령 중에서도 재직기간이 길었으며 한국 정치에 크게 영향을 준 이승만대통령과 박정희대통령 두 지도자에 국한시켜서 본 연구의 범위를 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과 범위를 상정하고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 3) 文英姬, “정치적「리더십」에 관한 연구—心理的 側面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81, p. 21.
- 4) H. Lasswell, *Psychopathology and Politics*.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30), pp. 78~152. 이극찬, 「정치학」(서울: 법문사, 1981), p. 197.
- 5) H. Lasswell, *Power and Personality*, pp. 59~93. Ibid., p.197.
- 6) 이극찬, op. cit., p. 221.

우선 二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일반적인 정치 지도자들의 성격과 그에 준하는 리더쉽형을 특히 그 양자간의 상관관계에 주의하면서 살펴본다. 즉 그것은 크게 민주주의적 성격과 리더쉽, 전체주의적 성격과 리더쉽, 권위주의적 성격과 리더쉽 및 관료주의적 성격과 리더쉽으로 구분하였다.

이어 三章과 四章에서는 이대통령과 박대통령 두 지도자의 성격과 리더쉽을 분석한다. 우선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의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과 세계관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서는 분석된 그들의 성격은 그들의 정치 리더쉽 — 정책정향과 통치전개과정 및 통치스타일 — 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를 알아보려고 했다.

마지막 五章의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정치 발전상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민주적 발전을 위한 지도자상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第二章 政治指導者の 性格과 리더십 類型

第一節 民主主義的 性格과 리더십

인간의 성격이나 특성이 시민정치의 운영과정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를 구분할 수는 없는가? 실로 민주적인 개성은 존재할까? 이 문제를 연구하는 최근의 정치학자들은 “시민 민주 정치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치관이나 태도, 의견 또는 민족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고 로버트 달(Robert A. Dahl)은 지적하고 있다.⁷⁾ 또한 이러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에 대한 관념, 타인에 대한 관념, 권위체계, 공동체, 가치체계 등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데, 즉 그것은 다음과 같다.⁸⁾

1. 자기 개인에 대한 태도 : 자아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신념.
2. 타인에 대한 태도 : 타인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태도.
3. 권위체계에 대한 태도 : 개인적인 자율성을 강조하고 강력한 권위체계에 대해서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권위주의적인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지배와 복종의 필요성이 결여되어 있다.
4. 공동체에 대한 태도 : 자기의 의견과 다른 주장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솔직함이나 타협이 가능하다는 생각과 변화에 순응하는 태도.
5. 가치체계에 대한 태도 : 단일적이고 절대적인 목표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가치들을 추구하며, 이러한 가치체계를 독점하거나 축적하려는 것보다는 공유하려는 태도.

로버트 달의 이상과 같은 지적은 전적으로 異論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민주적 성격을 가진 지도자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민주적 리더십의 이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깐(C. Gibb)은 민주적 리더십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⁹⁾

- 가. 인간관계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한다.
- 나.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집단에의 참여를 확대한다.

7) Robert A. Dahl, 진덕규 옮김, 「현대정치의 분석」(서울: 학문과 지성사, 1984), pp. 187~188.

8) Ibid.

9) C. A. Gibb, “Leadership” in Lindzey(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II, 1954, p. 234.

다. 성원의 능력을 인지조정하고 합리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라. 성원의 활동의욕을 고취시킨다.

마.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최대한 개방한다.

또한 크레취(D. Krech)와 크러취필드(R. Crutchfield)는 민주적 리더십은 첫째, 성원에게 집단의 공동목표를 설정하는 일에 관여케하며 집단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동기를 조정하며 둘째, 책임은 성원 전원에게 공평히 분담시키고 셋째, 집단구조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원간의 접촉과 인간관계를 장려하며 넷째, 성원간에 생기는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며, 마지막으로 특권이나 혜택이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거나 서열적 혹은 계열적 집단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¹⁰⁾

실로 민주적 리더십에 있어서의 지도자는 피지도자 속에서 선출되고 공개적으로 행동하며 또한 비판을 받고 책임을 지며 끊임없이 更迭流動된다.¹¹⁾ 이러한 리더십은 개인주의, 민주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 있어서의 유형으로, 지도자는 외적 권력이라든가 초월적 권위와 같은 권력성 위에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지도자와의 윤리적인 인격 교환관계를 그 지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지도자는 활발한 집단 토의를 통하여 각자의 능력과 창의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고자 노력하며 또한 집단 성원간의 마찰과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집단관계를 공고히 한다. 또한 민주적 사회에서는 어떤 분야에서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추종자로 되며, 거꾸로 어떤 분야에서는 추종자가 다른 분야에서는 지도자로 되는 이른바 지도자의 만능화, 고정화는 원리로써 부정된다. 민주적 지도자는 언제나 제도의 대표로서 머무르고 있으며, 독재자처럼 제도에 대체할 것을 주장하는 일이 없다.

第二節 全體主義의 性格과 리더십

전체주의적 리더십은 민주적 리더십과는 전적으로 대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태리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및 소련의 스탈린 치하를 그 전형적인 예로 볼 수가 있다.

플라우어맨(Samuel H. Flowerman)은 독재주의적인 퍼스낼리티 형성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다섯가지로 분류하였다.¹²⁾

첫째, 독재주의자는 엄격하고도 한정된 이미지네이션을 가지며 둘째, 遵奉者이며 셋째,

10) 김명훈, 「리더십론」(서울: 大旺社, 1980), p. 116.

11) 이극찬, op. cit., p. 221.

12) 文英姬, op. cit., p. 74.

群居心理를 가지며 네째, 僞裝 保守主義者이며 다섯째, 道義的 純粹主義者이다.

遵奉者라 함은 독재적이고 불합리적이며 그것은 곧 대중을 높은 권위에 강제적으로 순종시키는 것이다. 그는 세상을 악에 찬 불친절한 것으로 공상한다. 그의 한정되고도 엄격한 이미지네이션이 바로 독재적인 퍼스낼리티는 제한된 방법에서 반영되는 일종의 기계적 인간이라는 사실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념이나 행동을 철저히 관철시키려 든다. 뿐만 아니라 內集團에 강렬한 동류의식을 느끼는 데 반하여 外集團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품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몹시 배타적이며 애국자인 것처럼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한 민주주의적인 제도를 몹시 싫어한다. 그러면서도 자기집단은 도덕적으로 순수하다고 생각하며 일면 다분히 호색적이기도 하다.

실로 파시즘의 지도자는 — 후술하는 바와 같이 — 대중심리의 마이너스면, 이를 테면 情緒性과 攻擊性向을 극도로 교묘하게 이용했다.¹³⁾ 즉 사회적 불안에 떨고 있는 일반대중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현가능성 있는 복지증진 정책을 제시하는 대신에 “스케이프고우트(Scapegoat)를 만들며 (유대인 학살가), 마이너스 심볼(이를 테면 반자본주의, 반사회주의, 반유대주의 등)을 내걸고 대중에게 호소함과 더불어 “피의 신호” 즉, 우수민족의 신화를 만들어 대중을 선동함으로써 이것을 피보호의 대상으로 화하게 하였다.

파시즘의 지도자는 오직 “긴장의 확대 재생산”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일원적 사회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¹⁴⁾ 따라서 여기서의 지배자는 피지배자와는 다른 특권적 존재로 생각되어 지며 책임을 지지않고 비판을 초월하며 비밀적으로 행동하여 그 지위를 고정화시킨다.

한편 레슈탈은 전체주의가 갖는 특징으로 다음의 열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¹⁵⁾ 그것은 전체주의 리더쉽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첫째, 대중정당 또는 운동이다. 수적으로는 많지만 전체인구의 소수에 불과한 당원을 갖고 있는 대중정당 또는 운동은 전체주의적 지배자들이 그들의 의지를 사회에 부과하며 리더쉽을 제공해 주는 주요한 도구이다. 당은 시민들을 정치엘리트로 충원하는 수단이 되며 이를 위해 당학교를 운영한다. 당은 국가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하여 후자를 스스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다. 따라서 국가는 당이 채택한 결정을 완수하는 도구가 된다.

13) 이극찬, *op. cit.*, p. 221.

14) *Ibid.*, p. 222.

15) 金學俊, 「소련정치론」(서울: 一志社, 1976), pp. 299~301.

둘째, 공식적 이데올로기이다. 공식적 이데올로기는 과거의 사회, 정치형태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새로운 사회질서와 새로운 인간이 만들어질 천년왕국을 제시한다. 지배자들은 자신과 정권의 모든 행위를 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합리화한다.

세째, 야심적이며 거대한 건설계획이나 군사목표이다. 전체주의 체제는 댐, 운하, 공장의 건설 등 야심적이며 거대한 건설계획을 추진, 대중을 동원하거나, 우주탐색, 대규모 군사작전 등 팽창주의 정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결정이나 행위에는 사실상 법적 제약이 없다.

네째, 자유롭고 자발적인 결사체의 부인이다. 전체주의 체제는 政體를 社會全體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개인이나 집단의 존재를 부인한다. 따라서 전체주의 체제에 조직이 있다면 그것은 당과 전체주의적 운동에 의해 통제되는 조직일 뿐이다.

다섯째, 경제의 소유 또는 직접적 통제이다. 전체주의는 경제의 대부분 또는 거의 대부분의 계획을 통해 經濟決定을 자신의 의지에 종속시킨다.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재산의 양과 종류를 제한함으로써, 전체주의 체제는 ‘물질적 충족’을 분배하거나 보류하는 유리한 입장에 서게되며, 정치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를 행한다. 경제정책의 목적은 정치권력의 강화에 있다.

여섯째, 매스미디어의 독점이다. 전체주의 체제는 전체주의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형만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식적 이데올로기만을 주입시키고 외부사상의 유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폐쇄 사회를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 매스미디어를 독점한다.

일곱째, 비밀경찰조직이다. 설득과 교화가 부적당한 경우, 폭력에 의존하기 위해 폭력 기술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압정치를 유지한다. 이 기구는 방대하며 현대과학기술로 무장되기 때문에 유지비가 높다.

여덟째, 사회생활과 정치생활의 동질화를 시도함과 동시에 전체주의 지배자들은 사회를 원자화하여 개인들을 무력하게 만든다. 또한 위협수단을 통하여 개인들이 비공식적 반대 그룹을 만들어 낼 능력을 제한한다. 전체주의 지배자들은 또한 항상 피치자에 대해 ‘심리적 테러’를 행한다. 즉 공포 분위기와 상호 불신감을 조성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반대의 무용성과 위험성을 느끼게 하고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체념을 갖게 한다.

아홉째, 전체주의 체제는 ‘긴장 위에서 번영하는’ 경향이 있으며 항상 內·외의 적 — 그것은 실제일 수도 있으며 상상일 수도 있다 — 에 몰두해 있다. ‘우리들을 파괴하려는 악마들의 음모’를 강조한다.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반혁명분자’, ‘반동분자’ 또는 다른 적에 대한 정기적 캠페인을 벌이며, 스키프고우트(Scapegoat)를 사용한다.

열째, 전체주의 체제는 항상 動的이며 팽창주의적 요소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그 체제가 무활성적이 되고 혁명적 비전과 열의를 상실한다면, 정치체제로서 생존능력은 견지할 수 있겠지만 전체주의 성격을 잃게 된다. 따라서 전체주의 지배자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업적'을 선전하고 많은 피치자가 개입되는 어떠한 운동을 전개하거나 또는 대외문제에 개입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결국 전체주의 지도자는 과거의 어떤 지도자보다도 더 한층 절대에 가까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신비적 또는 마법적 단합 속에서 자기 자신과 추종자를 피차간에 동일화시키며 그는 또 이 기반 위에서 대중선전과 테러의 뒷받침을 받음으로써 통치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¹⁶⁾

第三節 權威主義의 性格과 리더쉽

1950年 이래로 소위 '권위주의적 성격'의 특징과 양상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 로버트 달(Robert A. Dahl)은 "인습에 엄격하게 얽매어 있고 권위에 무비판적으로 맹종하고 인습적인 가치와 체계를 파괴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격하고 처벌하려 하며 이 세상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하거나 상상적이고 주관적인 사람을 배척하고, 권력과 경직성으로 가득 찼고 냉소적이며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야만적이고 위험한 것에 관심을 갖는 한편, 말썹이 된 성직문제와 결부된 것에는 지나치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인물들을 권위주의적인 사람"¹⁷⁾이라고 특징 지웠으며 아도르노(Adorno)는 그의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라는 저서에서 권위주의적 성격이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진 개성이라고 하고 있다.¹⁸⁾ 즉 첫째, 철저한 因習主義로, 중산층의 가치관에 대한 신봉. 둘째, 공격성 — 이러한 인습에 대한 위반행위를 가차없이 처벌하고 저주하려는 경향. 셋째, 굴복성 — 인습적 가치를 맹목적으로 받아드리며 이에 굴복하는 경향. 넷째, 유연한 태도나 환상에 대해서 적의감을 품으려는 경향. 다섯째, 지배와 권력의 중요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 그리고 強硬性和 강자와 약자에 대한 지나친 강조 및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를 강자와 약자의 관계로 보려는 경향. 여섯째, 인류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적 또는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려는 경향. 일곱째, 세계는 거칠고 위험하며 외적세계에 대해서 늘

16) Carl Friedrich & Zbigniew Brzezinski, 崔雲芝譯, 「全體主義獨裁政治論」(서울: 正林社, 1972), p. 56.

17) 진덕규譯, op. cit., p. 118.

18) Adorno, et al.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0), pp. 152, 149, 251.

한배호, 「한국의 정치」(서울: 박영사, 1984), p. 177에서 재인용.

경계해야 한다는 신념 등이 그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한다.

한편 크레치와 크러취필드(David Krech & Richard S. Crutchfield)에 의하면,¹⁹⁾ 권위주의적 지도자는 보다 철저한 권력을 행사하며 집단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집단구성원간의 상호관계까지도 결정해 준다. 그뿐 아니라 집단구성원의 공과를 평가하는 권한도 그만이 소유하고 있어 개개 구성원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권위주의적 지도자는 이러한 절대적 기능을 고의적, 의식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며 그러한 기능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그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테크닉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집단 구성원들로 하여금 집단의 목표를 결정하는 일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며 지엽적이거나 집단목표와는 관계없는 일에 구성원들을 몰두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권위주의적 지도자는 구성원들에게 그의 지도자가 절대 필요함을 인식하게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의 지위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권위주의는 반민주적 차원의 이데올로기성을 띠고 정치, 사회구조에 있어서 엄격한 계층성과 위계질서를 강조한다고 한다.²⁰⁾ 따라서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적 절차가 배격되고 여러 집단들이 존재하더라도 이들은 대부분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원색적 요소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집단 상호간에 있어 협조적 교류보다는 질서와 반목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사회의 정치체제하에서는 어떤 개혁시도도 길이 막히고 자유스러운 의견교환을 위한 공개시장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얼핏 보기엔 전체주의적 리더십과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뢰벤슈타인(K. Löwenstein)에 의하면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란 단일한 권력 보유자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적 조직이다.²¹⁾ 또한 어떤 정치학자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전체주의적 정치체제와 구별짓는 기준으로서 多元主義와 靜態性을 지적하고 있다.²²⁾ 즉 전체주의는 문자 그대로 사회를 一元化에로 재편성 시킴과 더불어 언제나 모험적이며 동태적인데 대해서 권위주의적 체제는 아직도 多元主義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는 동태적이 아니라 정태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주의 정치체제로부터 권위주의 정치체제로 옮겨가든가 또는 그와 반대로의 과정을 취할 수도 있게 된다.

19) David krech and Richard S. Crutchfield, *Theory and Practice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 McGraw-Hill Co., 1964), pp. 425~426. Ibid., p. 118에서 재인용.

20) 李相九, 「민주정치론」(서울: 大旺社, 1984), p. 196.

21) 이극찬 op. cit., p. 222.

22) Ibid.

이와 같이 고찰해 보면 일단 이념적으로는 양자의 차이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둘을 합하여 “권위주의적 전체주의”로도 되므로 양자의 차이를 뚜렷이 식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²³⁾

현대에 있어서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실례로서는 아마 프랑스의 드골을 들고 있을 것이다. 드골 체제는 드골의 권위에 의존하면서도 여전히 다원주의적이며 동태적인 전체주의 체제에 비해 보면 정태적이다. 그는 의식적으로 권위를 재생산하지만, 나치독일의 히틀러 처럼 강제적 동질화의 대상으로 하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第四節 官僚主義的 性格과 리더십

관료주의적 리더십은 사회가 관료화되며 조직화 됨에 따라서 등장하게 되는 리더십이다. 즉, 관료는 보통 국민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것보다 리더십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권한과 의무 및 책임으로써 국민을 지도, 봉사하는 입장에 있으며, 또한 그들은 국가이념 및 사회 제 가치와 동일성이 요구되는 지도자이다.²⁴⁾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관료주의적 리더십은 대표적 리더십에 가까운 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대표적 리더십이란 문자 그대로 사회에 존재하는 가치를 그대로 대표하는 형으로써, 근대 및 현대의 안정된 정치사회에서 성립되는 전형적인 유형의 지도력이다. 이러한 사회에서의 정치권은 대중의 동의에 기초를 두고 행해져야 한다는 명분이 제도의 원리로서 성립되고 대중은 안정된 사회 질서 밑에서 그들의 ‘이익’의 충족을 정치에서 구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의 과제는 이익을 중심으로 특정화되고 지도자는 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나타나게 된다.²⁵⁾ 이러한 의미에서 관료주의적 리더십을 이해 한다면, 본질적으로 관료주의적 리더십은 보수적이며 새로운 상황을 타개하려는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편, 관료주의란 말 자체는 秘密主義, 煩文縟禮, 先例踏襲, 劃一主義, 形式主義, 法規萬能, 創造性的의 缺如, 派閥의 權威主義, 職權 排他主義, 職權의 利權視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식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²⁶⁾ 따라서 관료주의적 리더십은 경제공황과 같은 위기현상이 보여지게 된 결과 사회가 해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부적합하게 된다. 관료형 지도자는 안정된 好景氣期에는 환영을 받게 된다.

23) Ibid., p. 223.

24) 김명훈, op. cit., p. 35.

25) 金泰昌, 「現代政治學概論」(서울: 東亞學習社, 1981), p. 200.

26) 鄭仁興外, 「政治學大辭典」(서울: 博英社, 1980), p. 147.

第三章 李承晩大統領의 性格과 리더쉽

第一節 李大統領의 性格

1.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

李承晩大統領은 1875年 3月 26日 황해도 平山郡의 농촌부락에서 태어났다. 그는 비록 가세는 기울어졌으나 李太宗의 장자인 양녕대군의 후예로서 양반 귀족 가문 출신임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李大統領이 세살 때 서울 변두리로 이사하였고 그후 李大統領은 서당에 다니며 한문을 공부하였다. 李大統領이 성장한 시대적 환경은 1880年代로, 歐美列強의 개국 요구와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말의 정치가들이 개화파와 수구파로 갈리어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었을 때였다. 개화당에 의한 甲申政變이 일어난 것은 李大統領이 열살이 되던 해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대의 변천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안목을 가졌던 젊은 엘리트들의 開化努力은 실패고 돌아갔고, 수구파 사대당이 그들의 權力維持에 성공하였으나 歐美列強의 압력이 가중되고 러시아·中國·日本이 한반도의 지배권을 두고 맹렬한 각축전을 벌리고 있을 때 집권엘리트들은 어떠한 바를 모르고 右往左往하고 있었다.²⁷⁾ 그러한 가운데 외세의 도전과 영향은 國民의 사회생활로 파고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것이 감수성이 예민한 靑少年들, 특히 소년 李承晩의 마음 속에 적지 않은 충격과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소년 李承晩은 전통적인 엘리트 등용문이었던 과거에 응시하는 데 注力을 했던 것 같다. 13세부터 시작하여 19세에 이르기까지 매년 응시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그는 계속 낙방의 고배를 마시었다. 그래서 그 노력을 포기하고 미국선교사들이 設立한 배재학당에 入學하여 시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영어공부에 치중함으로써 그는 1895年 韓·英兩字로 나오는 每日新聞의 편집인이 되어 時論에 대하여 날카로운 필봉을 휘둘렀다. 淸·日戰爭 後 日本의 지배력이 강화되자 그에 저항하기 위하여 독립협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高宗은 독립협회의 저항운동에 골치를 앓고 서재필을 국외로 추방하는 한편, 그 회원간부를 체포하였다. 李承晩은 이런 정부의 탄압정책에 반대하며 대중을 선동하여 조직하였고 그러다 그는 체포되어 1898年 終身刑을 받고 7년간 징역생활을 해야만 했다. 1904년 출옥 후 그는 閔泳煥과 韓圭壽의 부탁을 받아 미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헤이(Hay) 국무장관과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大統領을 만나서 日本의 한국병합을

27) 讀書新聞社編, 「한국사의 조명」(서울: 독서신문사, 1975), pp. 511~519.

沮止해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그의 설득과 간청은 무위로 돌아가고 한국이 일본에 의하여 병합될 기미가 보이자 그는 환국하지 않고 미국선교단 장학금을 받아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1907年 조지 워싱턴大學校에서 학사학위를, 1908年 하버드大學校에서 석사학위를, 그리고 1910年 프린스턴大學校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그리고 귀국하여 Y. M. C. A. 本部の 총무를 맡아 일하였으나 1912年 미네아폴리스(Minneapolis)에서 열리는 세계감리교회 회의에 참석한다는 名目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미국에 체재할 궁리를 하던 끝에 朴容萬의 초청으로 하와이에 가서 韓人學校 校長으로 있으면서 한국독립운동에 종사하다가 1919年 上海에서 세워진 한국임시정부의 초대대통령이 되었다. 그후 대통령을 사임한 후 하와이를 본거지로 하여 임시정부의 歐美部長으로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열리는 주요 국제회의를 좇아 다니면서 日本의 세계정복 야욕을 경고하였다. 신흥 日本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설득과 간청을 각국 신문에 기고하거나 또는 면담과 강좌를 통하여 여론을 환기하는 活動을 계속하였다. 그의 論旨의 요점은 한국이 일본에 예속되어 있는 한 세계평화는 없다는 것이었는데, 당시 이런 논리에 의하여 설득당할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러나 그는 그런 활동을 그의 원칙으로 알았고 30여년간 이런 독립운동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1945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李大統領의 숙원은 달성되었다. 그는 귀국하여 좌익세력과 투쟁하여 대한민국을 건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1948年 초대국회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그의 나이 73세가 되던 해였다. 그가 국민대중으로부터 독재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12년 동안 집권하다가 1960年 4月, 학생의거로 하야한 것은 85세가 되던 해였으며, 그후 그는 하와이로 돌아가서 6年後 노환으로 서거하였다.²⁸⁾

以上에서 볼 때 李承晩大統領은 한말의 정치적 위기와 사회적 불안정이 고조했던 시대 환경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하였다. 그는 李王朝의 후예로서 사회적 존경을 받을 신분인데다가 6대독자로서 집안의 극진한 사랑과 보호를 독점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그가 成長하여 사회에서 그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찬양, 또 절대적인 존경과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 그는 큰 모욕감과 욕구불만을 느끼며 그런 냉대를 理性的으로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性格이 형성되었던 것 같다.

28) 李大統領의 傳記로는,

李元淳, 「人間李承晩」(서울: 신태양사, 1965); 孫世一, 「李承晩과 金九」(서울: 일조각, 1970); 許政, 「雲南 李承晩」(서울: 태극출판사, 1960) 등이 있다.

2. 李大統領의 世界觀

위에서 論한 생활환경이 李承晚大統領의 精神世界와 世界觀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李大統領의 부친이 그의 成長期에 生存하고 있었지만 당시의 양반계급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여기 저기 친구와 어울려 다닐 뿐, 하는 일 없이 소일하는 사람이었기에 李大統領은 父親에 대해 아무런 친근감도 느끼지 않고 친밀한 애정도 느끼지 못하였다.²⁹⁾ 李大統領의 幼年, 少年期를 통하여 가장 친근히 지낸 사람은 어머니로서, 그의 性格形成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래서 그의 父親이 李大統領의 同一化 象徴이 되지 못한 반면, 그의 어머니는 그의 精神世界의 支柱로 초석을 이루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써 李大統領의 소년시절의 精神世界는 다분히 女性的인 世界觀으로 나타난다. 그의 世界像은 마음껏 매만지고 힘껏 눌러대도 가혹한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世界요, 따라서 여성의 부드러움으로 나타난 것 같다.

李大統領이 成長함에 따라 그의 精神世界도 팽창해졌고 그의 어머니와 女性的인 世界像에 대한 강렬한 애정은 母國으로 투사되면서 그는 母國의 安全, 平和, 福祉에 대하여 일종의 무한한 책임과 집념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母國愛는 평생 동안 그의 行動을 지배한 삶의 보람이었다.

李大統領은 세계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한 것처럼 그의 自己本位的 行動을 후하게 포용해주고 지지, 찬양해 줄 것을 기대하였으며 그의 母國을 男性的인 異民族의 植民統治로부터 구출해 내는 것이 그의 평생소원이었다. 따라서 그의 平生目標가 실현된 다음 그의 母國인 韓國이, 그리고 제2의 母國이었던 美國이 그의 自己本位的인 행동이나 고집을 계속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은 것, 그리고 그를 母國으로부터 냉혹히 추방하여 망명 중 치욕 속에서 죽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가 末年에 받은 심대한 정신적 타격을 가늠하지 못한 채 비극적인 末年을 맞이한 것은 딱한 일이다.³⁰⁾

第二節 리더십

1. 政策定向³¹⁾

29) Robert T. Oliver, *Syngman Rhee : The Man Behind the Myth* (New York : Dodd Mead & Co., 1954), p. 3.

李大統領의 父親에 대하여 Oliver 는 “a fine looking man ; he was warm, hearted, gregarious, convivial and, improvident.”라고 묘사하고 있다.

30) 朝鮮日報, 1965년 7월 20일자, 1~2면; 7월 25일자, 3면.

31) 이 부분은 金雲泰外 共著로 되어있는 「韓國政治論」(서울: 박영사, 1982)에 韓昇助教授가 쓴 “한국 정치의 지도이념과 영도자”중 pp. 553~555의 내용에 주로 의존했음.

李大統領의 主要役割과 寄與는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고 그것을 유지 수호하는 것이었다. 건국후 그의 政權이 수립된 다음에도李大統領이 계속 一貫하여 강조하고 추구한 것이 反日·反共民主主義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表面上 民主主義를 표방하였으나 實은 平生 一貫하여 民族主義者였으면서 또 다분히 國際主義者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觀念的인 民主主義者로서 그 原理 原則을 反對할 意思나 生覺이 全然 없었다.李大統領이 프린스턴大學에서 工夫하고 있었을때 당시 총장이었던 윌슨은 李承晩을 남들에게 소개할 때 반농조로 “이 사람은 장차 한국독립의 구원자가 될 사람ियो”라고 소개하였다 한다. 이 말은 40餘年 후에 정확하게 적중된 豫言이었다. 실제로 李承晩은 平生 이 목적을 爲하여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일은 後代의 지도자에게 맡겨져야만 할 과제이었을 것이다. 李承晩은 北韓이 共產治下에 머물러 있는 한 그의 기본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北進統一이라는 포어를 내세웠고 한국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自己의에 아무도 그 일을 해낼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고령이라도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다. 이러한 사명의식과 끈질긴 집념이 그를 장기 집권하게 만들었고 그러다가 권좌로부터 수치스럽게 축출되고 만 것이다.

李承晩이 한국독립의 획득과 유지라고 하는 정치적 목표를 성취하는 主要手段은 外交이었다. 그는 한국독립의 획득과 유지 그리고 분단된 國土의 統一을 外部協力を 利用하여 달성하려고 하였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民主友邦의 利益에도 부합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 점에서 그는 國際主義者이었다. 그의 국제주의는 韓民族의 利益을 위하여 外勢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자기 中心主義的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처럼 그의 주된 관심이 外交問題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國內問題나 行政事務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쏟지 않는 편이었다. 또 그는 평생동안 行政에 대한 훈련이나 경험을 쌓을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래서 국가발전이나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어두울 수 밖에 없었다. 만일 그가 좀더 年富力強한 立場에서 大統領이 되었다더라면 그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여 行政經驗을 습득하고 行政 能力을 향상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73세에 대한민국의 초대대통령이 된 李博士로서 그때부터 新生國의 정치행정을 습득하기에는 精神的으로나 知的으로 너무나 노쇠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가발전이나 근대화의 업무수행을 박력있게 능률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수 있는 人物이 아니었다.

2. 統治 展開過程

李承晩大統領의 권력상황은 그가 大統領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회에서의 與·野의 분포

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초대국회의원을 선출하는 5·10총선거의 결과는 南·北協商派의 선거 거부로 말미암아³²⁾ 당연히 李承晩 路線을 지지해 오던 大韓獨立促成國民會(53名)와 韓國民主黨(29名)이 制憲國會議院內에서 제 1위를 占하게 되었다.³³⁾ 그러나 李承晩 路線을 적극 지지해 오던 韓民黨은 국회에 있어서의 투쟁대상이었던 少壯派의 몰락 후 정부구성에 대해 불만을 품고 野黨의 자리로 돌아섰다. 마침 申翼熙, 李青天 等 要人을 규합해서 당세를 확장하고자 1949年 2月 10日에는 民主國民黨으로 개칭하고 李大統領과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권력구조를 議院內閣制로 바꾸려는 개헌안을 1950年 1月 28日 국회에 제출했으나 可 79 否 33 棄權 66, 無効 1로 부결되었다.³⁴⁾ 제헌국회의원의 임기 2년이 지남에 따라 1950年 5月 30日 제 2회 총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선거결과는 5·10총선거를 거부했던 南·北協商派의 선거참여로 與黨에 속한다 할 수 있는 의원수는 도합 57名, 野黨으로서의 民主國民黨이 겨우 24名(野黨系는 27名)으로 감소된 데 반하여 無所屬이 126名이나 진출함으로써³⁵⁾ 李承晩 政權의 기반은 아주 불안정 해졌다. 이런 상황은 反獨裁路線을 강화시켰으며 여기에서 이미 제헌국회에서 싹튼 議會民主主義를 사실상 지양하게 될 집행부와 국회간의 대결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行政의 수반으로서 활동하는 大統領의 行政은 국회의 반대에 부딪치고, 국회가 결의한 결정은 大統領의 拒否權에 의해 좌절되었다. 4년간의 임기로 국회에 대한 책임없이 통치하는 大統領에 의해 行政權은 강화되고 그에 의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議院內閣制的 要素들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물론 그에 대한 저항은 있었으나 그런 저항들은 결과적으로 이른바 新大統領制 형태로서의 獨裁에로의 발달을 저지할 수 없었다. 이런 발달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것이 6·25戰爭이었으며 전쟁을 겪는 동안 부정 부패의 상징적 사건으로서의 國民防衛軍 사건³⁶⁾은 정부로부터의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는 동시에 국회내 野黨勢를 증강시켰고, 날이 갈수록 정부와 국회간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국회에서의 李大統領의 재선거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野黨에 효과적으로 대결하여 李承晩 政權의 지속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政黨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 필요에 직면했다. 그래서 우선 1951年 5月, 親與系와 無所屬議員들 94名이 共和民主會라

32) 1948년 2월 10일 金九의 성명「3천만 동포에게 泣告함」; 金學俊, “남북한관계”, 「정경연구」, 1975년 8월호, p. 57. 참조.

33) 金雲泰, 「해방 30년사」, 2권(서울: 성문각, 1976), p. 40.

34) Ibid., p. 45.

35) Ibid., p. 51.

36) Ibid., pp. 65~67.

는 院內交涉團體를 구성하였다.³⁷⁾ 그에 이어 8月 25日에 처음으로 李大統領은 新黨을 조직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³⁸⁾ 이 담화발표와 더불어 新黨組織運動은 院內·外에서 활기를 띠었으며 이렇게 되자 1951年 11月 30日 정부는 大統領直選制와 上·下兩院制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院內派의 많은 의원들은 單院制와 大統領間選制를 희망했고, 院外派만이 정부의 개헌안을 지지함으로써 정부가 제출한 제 2 개헌안이 압도적으로 부결될 분위기가 지배하자, 1951年 12月 23日에는 각기 自由黨이란 동일명칭 아래 두 개의 政黨이 발족했다. 세칭 民政會所屬議員 일부가 중심이 된 院內自由黨과 族靑系勢力과 國民會·韓靑·勞總·農總 등으로 구성된 院外自由黨이 그것인데 院外自由黨은 少數院內議員을 포함하여 黨首에 李大統領을, 副黨首에 李範奭을 선출했고, 그에 이어 李大統領은 당수취임을 수락했다. 한편 院內自由黨은 李承晩의 新黨組織提議에는 호응했지만 정부가 제안한 大統領直選制 개헌안에는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1952年 1月 18日 국회는 可 19, 否 143, 棄權 1이라는 압도적 다수표로 정부측 개헌안을 부결시켰다.³⁹⁾ 大統領直選制 개헌안을 부결시킨 표결과정에서 국회내에는 李大統領支持勢力이 19표 밖에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으며 直選制改憲企圖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院外自由黨을 발족시켜야 했다. 院外自由黨이 주동이 되어 議會主義를 공격하는 改憲案否決反對民衆大會를 개최하고, 헌법규정도 없는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전개하였다.⁴⁰⁾ 또한, 이런 운동을 수단으로 하여 直選制支持者들은 地方議會構成을 통해 直選制改憲案을 부결시킨 국회를 견제하고자 했다. 이런 운동을 위해 李大統領은 自由黨의 창당을 필요로 했고, 그를 위해 전국적인 조직으로 잠재해 있던 民族靑年團의 세력을 등장시킬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戰局이 소강상태를 유지함에 따라 다시 政局은 동요하게 되어 1952年 4月 12日 議員 123名の 연서로 議院內閣制改憲案이 제출되었는데 123名이란 數字는 개헌정족수인 재적의원 2/3보다 한 사람이 더 많은 숫자이다. 이렇게 되자 院外自由黨을 비롯한 18개 단체가 同改憲案反對全國政黨鬭爭委員會를 조직하여 정부와 국회가 전면적으로 대결하게 되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정부는 地方議會議院選舉를 서둘러 4月 25日에는 市·邑·面議會議員選舉를, 그리고 5月 10日에는 道議會議員選舉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서는 물론 정부의 지원을 받은 自由黨의 대승으로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간의 대결은 5月 25日을 기해 정부에 의해 공비잔당의 소탕이라는 구실로 선포된 경남과 전

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大韓民國 政黨史」, p. 164.

38) “광복 30년 중요 자료집”, 「月刊中央」, 1975년 1월호 별책부록, pp. 138~140.

39) 金雲素, op. cit., p. 83.

40) Ibid., pp. 83~84. 참조.

남·북에 걸친 非常戒嚴令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국회의원 통근 버스가 헌병대에 강제 연행되었고, 국제공산당에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10명의 국회의원이 체포되기도 했다. 각 道議會에서는 國會解散決議案을 통과시켜 이를 정부에 요청했고, 이에 대해 李大統領은 國會解散을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 때 정부측에 의하여 소위 拔萃改憲案이 마련되었으며 李大統領은 拔萃改憲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회를 해산할 용의가 있다고 위협했다. 구속 중이던 10명의 국회의원이 석방되고, 피신 중이던 의원들도 경찰의 연행식안내로 등원하여 며칠씩 연금되는 상황에서 7月4日 밤 국회는 起立表決도 可 163표, 棄權 3표로 拔萃改憲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⁴¹⁾ 이런 헌법개정을 통해 독재적인 官僚主義的 政治體制와 李大統領의 권력지위의 영구화를 위한 기반이 헌법상 마련되었으며 1952年 8月, 正·副統領選舉가 실시되어 官權選舉를 통해 李承晩이 재선되었고, 부통령에는 李範奭을 누르고 戚台永이 당선되었다.

전쟁이 휴전협정성립으로 일단 마무리되고 정부가 서울로 천도한 다음 1954年 5月 20日에 실시된 제3대 民議院選舉에서 自由黨은 선거사상 처음으로 政黨公薦候補制를 실시했고, 선거강령으로 헌법개정을 내걸었는데 그 골자는 李大統領에 한해서 重任制限을 적용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선거결과는 自由黨이 대승하여 총의석 203석 중 과반수를 넘는 114석을 차지하였고 民國黨이 15석, 無所屬이 67석을 얻어서⁴²⁾ 議政史上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與黨이 지배하는 국회가 성립된 것이다.

第3代 民議院의 開院과 함께 自由黨의 최대목표는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李大統領의 終身連任制改憲이었으며, 이 목적을 위해 무소속의원의 포섭공작이 이루어졌고 드디어 개헌선인 재적의원 2/3에 해당하는 136의원 확보에 성공하였다. 이에 정부와 협력하여 自由黨은 9月 8日에 136명의 연서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헌의 주목적은 李大統領의 終身執權과 부통령에게 權力의 자동적인 이양을 확보하려는데 있었다. 개헌안은 11月 27日 찬성 135표로 재적 203명의 2/3인 136표에 1표 미달하여 부결이 선포되었으나, 自由黨은 29日 국회 본회의에서 四捨五入式 논리로 개헌안 가결을 반복 선포하여⁴³⁾ 李大統領의 3기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野黨의 新黨運動이 전개되어 1955年 9月 18日 自由黨脫黨議員과 興士團을 흡수하여 民主國民黨을 民主黨으로 발족했다. 1956年 5月 15日 제3대 正·副統領選舉가 실시

41) Ibid., pp. 86~87. 참조.

42) Ibid., p. 102.

43) Ibid., pp. 103~106. 참조.

되었는데 民主黨이 선거구호로 내세운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선풍적이었다. 이는 權力의 기초가 동요되고 있음을 말하였고, 李大統領의 新絶對主義에 반대하는 정치의 양극화를 의미했다. 선거운동 중 申翼熙民主黨大統領候補가 급서함으로써 李大統領의 당선은 무난하였으나 부통령에는 自由黨의 李起鵬候補를 누르고 民主黨의 張勉이 당선되었다.

1958年 協商選舉法이 통과된 후 실시된 5月 2日의 第4代民議員 총선거 결과는 自由黨이 126석, 民主黨이 79석, 無所屬이 27석으로⁴⁴⁾ 마치 양당제의 확립같은 인상을 주었다. 이런 현상에 대한 기본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社會民主主義的인 進歩黨의 조직확장이 정치적 테러에 의해 방해되어 오다가 1958年 1月 12日 진보당 당수인 曹奉岩과 그의 간부가 간첩과의 접선 혐의로 체포되어 1959年 7月 31日에 사형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고려에 넣어야만 할 것이다.

더우기 그 총선거는 行政力을 총동원한 不正選舉로서, 법원에 제기된 선거소송은 무려 105件에 달했고, 부득이 自由黨이 당선된 10개 선거구에서는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판결을 내려야 할 정도였다. 물론 自由黨이 協商選舉法까지 통과시켜 놓고 이처럼 무리한 선거를 치르게 된 목적은 개헌선인 의석 2/3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 후 自由黨은 野黨뿐만 아니라 言論의 신랄한 비판에 대처해야 했으며, 이 때문에 政府와 自由黨은 言論의 강력한 통제를 가능케할 國家保安法改正案을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발동하여 野黨議員들을 퇴장·연금시킨 이후 1958年 2月 24日 강제로 地方自治法改正案·新年度豫算案을 포함시켜 國家保安法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이른바 二四波動이었으며 여기에다 日本의 교포복송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정부의 위신은 땅에 추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自由黨은 다음해로 다가온 正·副統領選舉에 대비해야 했으며, 여기서 自由黨 穩健派로부터 大統領直選制를 국회에 의한 大統領間選制로 바꾸려는 개헌안이 대두되었으나 民主黨과 타협이 안되자 개헌공작을 중단하였다. 이런 동시에 정부는 1959年 4月 30日 野黨紙인 京鄉新聞을 폐쇄시켰으며 그러면서 1960年 3月 15日의 不正選舉를 준비해 나갔다. 그러나 그 준비는 이미 李大統領의 終身一人統治體制의 붕괴과정의 한 원인을 이루고 있었다. 1960年 4·19의거에 의해 李大統領의 反共產主義的 新絶對主義體制는 무너질 수 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시의 駐韓美國大使 맥카나이 (W. P. McConaughy)의 景武臺出入이 있는 이후인 4月 26日에 李大統領이 下野했다는 점에서 시사되었다. 당시 美國은 종래의 冷戰政策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른바 대땅뜨政策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지위에 놓여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구성된 美國의 極東戰略

44) Ibid., p. 160.

에서 韓國을 다시 日本에 결부시키려는 美國의 정책이 이미 확정된 후이므로, 그리고 데탕트과정에 따르는 韓國 내에서의 新絶對主義에 반대하는 민주적인 政治意識의 만연과정으로 말미암아 反日路線을 취해온 李政權 대신 知日的인 民主黨의 예상된 대두는 미국정부의 對韓政策과도 부합할 수 있는 것이었다.⁴⁵⁾

以上에서 볼 때 李大統領이 직면한 권력상황은 그에게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는 이런 권력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여러번 改憲을 무리하게 시도하였는데 이런 非合法的인 과정에서 오는 國民의 不信, 野黨勢力의 強化, 獨裁政府에 대한 美國의 反對등으로 결국 李大統領은 자신에게 유리한 권력상황을 도출하지 못한 채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 4·19의거에 의해 下野하게 된 것이다.

3. 統治스타일

李大統領의 스타일은 그가 귀국하여 중앙방송국을 통해서 방송된 귀국인사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親愛하는 삼천만 동포 여러분. 한 덩어리로 뭉쳐서 나를 따르시오…… 男女여러분이 一心合力해서 나를 밀어 주시오」⁴⁶⁾ 한국독립운동의 巨星이며 功勞者인 李大統領의 귀국을 환영하던 국민들중에서도 權威主義的인 말투의 첫마디 인사가 어딘지 거리낌스럽다고 생각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8·15해방과 더불어 즉시 환국할 것을 바란 국민전체의 희망에 반하여 2개월 후인 10월 16日 귀국한 李大統領은 세가지 점에서 일부 국민에게 가벼운 실망을 안겨 주었던 것 같다. 첫째는, 그가 한국여성이 아닌 서양부인을 동반하여 왔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무리 40년간 外國生活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서투른 국어를 영어식의 억양에 붙여 얘기 한다는 사실, 셋째는 한국의 政治文化가 다분히 傳統的인 문화유형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전혀 몰랐던 국민에게 무조건 한 덩어리로 뭉쳐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놀라운 일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결함이 李大統領의 영도력 행사에 지장을 준 것은 아니었다. 그의 獨立路線에 대해 적지 않은 反對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48年 大韓民國政府가 수립된 것은 오직 그의 비범한 정치적 통찰력과 비상한 정치외교수완에 연유하는 것이라 하겠다.

실제로 李大統領의 독립운동 경력이나 공로는 뛰어난 것이었으며 그의 名聲·能力·愛

45) 車基璧, "4·19과도 정부 및 장면 정권의 의의", 「사회과학 13집」(서울: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75), p. 97 참조.

46) 李大統領의 歸國第一聲은 1945년 10월 17일 歸國人事에서 한 말이며 그것이 18일자 일간신문에 보도된 것이다. 조선일보, 1945년 10월 18일字, 1면.

國心·先見之明은 탁월한 것이었던 반면에, 그는 그 자신에게 무조건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내성 있게 說得하는 끈기는 갖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그 자신을 절대 숭배하고 무조건 복종하는 추종자들에 의해 둘러 싸여 있었고, 그들을 과분하게 보상하는 한편, 그의 政敵들을 가차없이 처벌하였다.

李大統領은 중요한 決定을 내릴 때에는 행정부에서 올라오는 보고·정보·분석을 세밀하게 검토·연구하거나 또는 각종 회의에서 논의하는 일 없이 그의 육감이나 짐작에 의해 손쉽게 결정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는 연설할 때나 담화문을 발표할 때도 그 원고를 他人에게 쓰게 하는 일 없이 노인답게 지루한 표현이나 시대착오적인 구식문체를 써가지고는 아무도 못 고치게 하였다.⁴⁷⁾

李大統領은 타고난 선동가였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大衆의 관심과 박수갈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좋아하였다. 올리버 (Oliver)는 그의 대중연설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그는 연단의 흥분을 즐겼으며 관중들의 진지한 관심과 박수갈채에 흥분되었다.李大統領은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그리고 비상하게 울리는 달콤한 음성을 소유하고 있었다. 신비로운 동양적 무표정과는 정반대로 그의 얼굴과 그의 육체적 움직임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는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국에서 대중연설가로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찌기 연단기술의 마스터(master)가 되었다. 연사로서 그는 기술의 습득보다는 생생한 많은 경험의 소유로, 그리고 그의 위엄있는 연설을 활기있게 해주는 정열로 더 유명했다.」⁴⁸⁾

한편 李承晚大統領은 극도로 恣意的이고 固執세고 論爭的인 사람이었다. 그는 그 자신이 생각한 것이나 행동한 것을 언제나 옳다고 믿었고, 틀렸다고 自認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가 추종자나 반대자에게 준 불공평한 보상이나 처벌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도 없는 사람이었다.

李大統領의 선동적이며 고압적인 스타일은 그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된 후부터 나타난 것이 결코 아니다. 1919年 상해임시정부의 수반으로 있었을 때 그 직명 사용에 물의가 일어났다. 당시 국무총리대리였던 安昌浩는 8月 25日 상해에서 다음과 같은 公翰을 발송하였다.

「워싱턴 歐美委員部 李承晚閣下.

47) 林淳默外, 「政界夜話」(서울: 弘友出版社, 1969), p. 340.

48) Robert T. Oliver, op. cit., p. 3.

처음 임시정부는 國務總理制度이고 한성정부는 執政官總裁制度이며, 어느 정부에나 大統領 職名이 없으므로 각하는 大統領이 아닙니다. 지금은 각하가 執政官總裁職을 가지고 정부를 대표한 것이니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大統領行勢를 하시면 헌법위반이며 정부를 통일하던 신조를 배반하는 것이니 大統領 행사를 하지 마시오」

이 전문에 대하여 李大統領은 8月 26日 다음과 같은 回信을 보냈다.

「우리가 정부 승인을 얻으려고 전력하는데 내가 大統領名儀로 각국에 國書를 보냈고 大統領名儀로 한국사정을 발표한 까닭에 지금 大統領名稱을 변경 못 하겠소. 만일 우리끼리 떠들어서 행동이 일치되지 못한 소문이 세상에 전파되면 獨立運動에 큰 방해가 있어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이니 떠들지 마시오. 워싱턴 李承晩」

이런 위압적인 전문을 받고 安昌浩는 할 수 없이 李承晩의 大統領稱號를 合法化하는 공작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⁴⁹⁾

이런 스타일은 대한민국헌법을 制定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兪鎮午교수를 포함한 헌법기초위원회가 오랜 심의 끝에 內閣責任制 헌법을 마련하였는데 李大統領一人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하루 저녁에 大統領中心制 헌법으로 돌변하고 말았다. 당시 제헌국회의장이던 李承晩은 만일 국회가 內閣責任制 헌법을 제정하는 경우, 그는 절대로 大統領으로 취임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政界에서 물러나서 하나의 새로운 국민운동을 벌리겠다고 협박하였기 때문이다.⁵⁰⁾

李大統領은 政策決定에서도 이처럼 고압적이고 자의적이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요직층원에 있어서도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일 때가 많았다. 그가 좋게 본 사람은 그의 經歷背景이나 人格·能力·適任性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요직에 앉히는가 하면, 그가 개인적으로 소망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불신하는 사람 또는 閣議에서 눈치없이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의 能力이나 人品에 관계없이 해직시켰다. 또 李大統領은 그 밑에 有力한 政治人을 두기를 몹시 꺼려했다. 건국과정에서 李博士의 정치노선을 적극 지지하여 그를 大統領으로 만드는 데 절대적 공로를 세웠던 韓民黨系人士들이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초대내각에서 제외된 것, 그리고 당시 막강한 族靑系勢力을 가지고 있던 李範奭國務總理와 그 勢力을 거세, 축출시킨 것이 바로 그 代表的인 例이다.⁵¹⁾

또 李大統領은 軍 장성들에게 많은 關心과 厚意를 베푸는 편이었으나 「divide and rule」(분열시켜서 다스린다는) 政策에 의하여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인기 없었던 政權을 12년

49) 孫世一, 「李承晩과 金九」(서울: 일조각, 1970), pp. 63~65.

50) 林淳默外, op. cit., pp. 65~87.

51) Ibid.

동안이나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요컨대 李大統領의 統治스타일은 前近代的인 權威主義이며 마키아벨리즘적인 造作性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第四章 朴正熙大統領의 性格과 리더쉽

第一節 朴大統領의 性格

1.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

朴正熙大統領은 1917年 11月 14日 慶北 善山郡 龜美面 上毛里에서 태어났다. 그는 빈한한 농가의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넉넉한 집안의 막내아들처럼 귀염받고 자랄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다. 차차 지각이 들면서 그는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사는 데 만족하지 않고 국가사회를 위하여 위대한 공로를 세움으로써 그의 生存에 대한 負債를 갚아야겠다는 강렬한 열정과 의지를 지니게 되었는데, 이는 그 유년기의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싹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26年 4月 그는 국민학교에 입학하였고 학교에서는 언제나 과묵하여 다른 어린이들과 섞여서 장난하고 뛰어노는 일도 별반 없이 공부만 하였다. 그래서 몸집은 깡마르고 조그마했으나 늘 학급에서 首位를 다투는 우등생이었다. 1932年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대구사범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그가 커서 국민학교 훈도가 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집안 형편상 학비를 낼 수가 없어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937年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자 그는 문경산골의 국민학교 훈도가 되었는데 그는 사범학교 졸업생으로서 최소한의 학교근무를 마친 후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였다. 日本人・韓國人・滿洲人 士官生徒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가운데 그는 최우등으로 졸업하였고, 다시 日本의 육군사관학교에서 일년과정을 마친 것은 1944年이었다. 그 후 육군중위로 해방을 맞이하였으며 해방 후 귀국하여 잠시 고향에 머물다가 국군에 입대하여 1946年 육사를 졸업하고 장교로 任官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국군대 생활을 통하여 별로 좋은 보직을 맡지 못했고 그의 승진도 남들에 비하여 느린 편이었다. 하나, 당시 국군내에서는 보기드물 만큼 근엄하고 청렴결백하며 매우 유능한 동시에 책임감이 강한 장교로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때문에 1953年 군단포병사령관, 54年 포병학교장, 56年 제 5사단장, 57년에는 제 7사단장, 58年 제 1군 참모장, 59年 제 6관구 사령관, 60年에 군수기지 사령관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자유당정부 말기에 와서朴장군은 3·15不正選舉에 개입하라는 上部의 지시를 거부하여 난처한 입장에 빠지기도 하였다. 李政權이 무너진 다음 陸軍內에서 3·15不正選舉에 개입된 장성 또는 李政權과 결탁하여 부정부패를 일삼던 장교를 추방할 것을 주장하는 肅軍運動이 일어났는데, 그 젊은 장교들은朴

正熙將軍을 肅軍運動의 지도자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이런 肅軍運動은 기존 고위층의 반격에 의하여 좌절되고 말았다. 그 주동자들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처벌되었을 때 朴將軍은 기존 사회권력구조가 그대로 지속되는 한 肅軍도 불가능함을 깨달아 본격적으로 군사혁명을 계획하기에 이르렀고, 그의 군사혁명은 성공하여 그는 정치지도자로서 발판을 굳힐 수 있게 되었다.⁵²⁾

以上에서 보면 朴大統領은 일제통치하의 견고한 식민정치적·사회적 안정기에 탄생하고 성장하였다. 그는 어려운 집안살림으로서는 식구가 너무 많아서 특별한 대우를 기대할 수 없는 위치에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에 그는 근면과 노력과 인내로서 그 자신의 存在價値를 끊임없이 증명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서 성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性格은 어려서부터 사회적 규범을 남달리 열심히 준수하였으며 모든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언제나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다.⁵³⁾

그래서 그는 성장한 다음에도 만사에 신중하였고 자제력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남들보다도 더 세밀하게 연구하며 더 부지런히 노력하여 그로써 얻어지는 뛰어난, 곧 괄목할 만한 성적 또는 업무에 의해서만 자신의 存在價値를 증명하며 더불어 바람직한 社會的 認定이나 尊敬을 받으려는 性格을 보이게 된 것 같다. 이것은 사회적 규범을 남들보다도 철저히 준수하는 하나 뛰어난 업적을 쌓지 못하면 사회적 존경을 누릴 수 없고, 그 안에서 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 朴大統領의 世界觀

以上에서 論한 생활환경과 성격이 朴大統領의 특이한 精神世界와 世界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朴大統領의 精神世界는 李大統領과는 달리 마음대로 행동해도 사랑과 관용으로 받아 주는 유순하고 온정어린 女性的인 世界像이 아니었다. 귀족층이나 상류사회에 있어서 그 자녀들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기에 그들의 世界는 인자하고 유순하며 애정적일 수가 있다. 그러나 가난한 농촌의 아동이 경험해야 할 世界는 냉엄하고 거치른 세계일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세계를 男性的 生活風土 또는 權威主義的인 精神世界로 비유할 수가 있을 것이

52) 朴大統領의 傳記 中,

鄭光模, 「청와대」(서울: 어문각, 1967); 鄭牧久, 「傳記 朴正熙」(서울: 교육평론사, 1966); 宋孝彬, 「가까이에서 본 朴正熙大統領」(서울: 휘문출판사, 1977)등을 참조.

53) 朴장군은 어릴 때부터 그의 거동에 어린애다운 데가 없어서 집에서는 '애늬은이'로 통할 정도로 행동이 신중하였다.

鄭光模, Ibid., p. 130.

다. 男性的 精神世界는 平等主義的이고 自然發生的이며 變化指向的일 수 있는 女性的 精神世界와는 대조적으로 上下階層的, 抑制的이며 位階秩序가 整然한 것이 특징적이다. 男性世界에서 존중되는 價値는 個人主義보다는 集團的 忠誠心, 知能보다는 勇氣와 意志, 潑刺한 創意性보다는 忍耐와 自制의 美德이 존중되는 文化풍토이다.

朴大統領은 한반도에서 일본의 식민지통치가 확립되고 일본의 군국주의와 무사도정신이 興起하는 시대의 사회환경에서 성장하고 그런 유형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다. 男性의 세계는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 당하는 가혹한 투쟁의 場이며 그렇기 때문에 男兒는 어려서부터 맹렬한 훈련과 克己自制生活를 통해서 미덕과 무술을 수련하여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용감한 무사 또는 투사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⁵⁴⁾ 이것은 무엇보다도 집단적 상징과 지도자에게 충성스러워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인간으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朴大統領은 이런 權威主義的 文化환경에서 성장하여 그 文化價値를 충실하게 內面化한 사람이며 이런 權威主義的 性格은 身分階級에 의한 權威主義가 아니라 個人의 能力과 業績에 기초를 둔 軍隊的 權威主義의 성격을 띠고 있다.

第二節 리더십

1. 政策定向⁵⁵⁾

朴大統領이 집권할 당시는 李大統領의 執權時와는 달리 바야흐로 국제협력의 時代이며 反共國家間의 連帶性과 地域的 協助가 강화되어야 할 시기였으므로 감정적인 反日政策의 效果도 의심스러워져 갔다. 또 국제적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美·蘇兩國부터 和解政策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反共一邊倒政策으로 일관하는 것도 재고할 만한 일기였다. 特히 공산국가가 표면적으로나마 平和共存 또는 平和的 建設競爭을 내세우던 시기에 와서 공산주의자의 排戰은 軍事的手段 보다 政治的·經濟的安定과 成長의 手段에 의해서 억제되어야 하며 여기에 새로운 대책이 고안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友邦 美國이 군사원조나 경제원조를 대폭 삭감하고 있었던 추세로 보아 北韓의 排戰을 단독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의 대비책이 시급하여진 것이다.

朴大統領이 5·16軍事革命을 일으켰을 때만 해도 70年代 만큼 명확하고 체계화된 이념이나 정치노선이 구상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가 軍事革命에 의해서 이룩하고

54) Adorno, et al.,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 Brothers, 1950), 참조.

55) 이 부분은 金雲泰外 共著로 되어있는 「한국정치론」(서울: 박영사, 1982)에 韓昇助教授가 쓴 “한국 정치의 지도이념과 영도자”중 pp. 556~557의 내용에 주로 의존했음.

자 한 목표는 명백한 것이었다. 卽 革命公約에서 첫째 정치과정이나 사회생활에서 들끓고 있는 혼란·부조리 그리고 부패를 제거하는 일, 둘째 절박한 民生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北韓을 능가하는 국력을 기름으로써 국토통일의 整地作業을 다지는 일, 셋째가 國民道義의 振作이었다. 그리고 한국의 主體性和 自立性을 확립하여 韓民族의 긍지를 되살릴 民族中興의 歷史를 열어 보겠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이러한 革命公約은 1972년의 10月維新에서 再強調되었으며 그가 執權하는 동안 계속 추구된 一貫되었던 政治路線이었다.

이러한 革命公約이나 政治路線은 한 마디로 “급속한 近代化和 發展”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가 있다. “祖國近代化”란 말은 朴正熙政權의 특징적인 정치표어와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政策下에서 몇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실행한 결과 急速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民生問題를 어느程度 解決하고 경제적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進入시키는데 成功한 反面 國民道義의 진작은 경제발전에 뒤따르지 못하여 物質 萬能思想이 팽배하고 사치풍조는 사회에 만연하여 階層間的 貧富差는 深化되어서 사회의 不安과 갈등은 갈수록 助長一路에 있었다.

2. 統治 展開過程

朴大統領이 대통령재직시에 있었던 국회내에서의 與野의 분포를 통해 그가 직면한 권력 상황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朴大統領은 張勉政府의 統治能力의 상실에서 야기된 혼란을 바로 잡는다는 의도 아래 61年 5月 16日 군사혁명을 단행하여 군대는 정권을 접수하고 동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事後에 尹大統領의 승인을 얻었다. 그 후 他律的이기는 하지만 국무총리와 전각료는 총사직을 단행하고 모든 정당, 사회단체는 해체되었으며 국회도 해산되어 政治는 休止期에 들어갔다. 군사혁명정부는 기존 권력구조의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그 시도는 부정축재자 처벌의 결과적인 포기, 1961년의 농어촌 고리채 정리의 부분적인 성과, 62년의 화폐개혁의 실패 등과 미국정부의 議會主義에로의 복귀압력에 겹쳐 수포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⁵⁶⁾ 여기서 5·16군사혁명의 한계는 뚜렷해져서 革命主體勢力은 그 권력의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民主共和黨의 創黨作業에 치중케 되었다. 한편 61年 11月 14日 朴正熙議長의 訪美를 계기로 하여 미국의 협조를 약속받은 혁명정부는 62年 3月 16日 舊政治人의 정치활동적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政治活動淨化法을 만들고, 舊公民權制限法을 폐지했

56) 文昌周, 「한국정치론」(서울: 일조각, 1965), pp. 333~342.

는데 이 淨化法에 의해 정치인 가운데 정치활동이 금지된 자는 62年 4月 15日까지 4,374名에 달했다가⁵⁷⁾ 朴議長의 63年 2月 18日 성명을 통해 政治活動淨化法 해당자는 269名으로 크게 감소했다.⁵⁸⁾ 이는 본질적으로 볼 때 모든 保守的인 舊政治人들의 정치에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美大統領 케네디는 63年 3月 21日의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정치활동의 즉시 중지와 軍政 4年 연장을 골자로 한 朴議長의 3·16성명⁵⁹⁾에 반하여 韓國의 民政復歸를 열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다시 4月 2日에도 한국정세에 대한 美國의 입장을 다시 천명했다. 그리하여 결국 63年 10月 15日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윤보선대통령후보를 15만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朴正熙議長이 大統領으로 당선되었다.⁶⁰⁾ 이어 63年 11月 26日 행해진 제 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民主共和黨은 지역대표 88名, 전국대표 22名으로 110名이 당선되었고 民正黨이 지역대표 27名에 전국대표 14名으로 41名이 당선됨에 따라 民主共和黨은 의석의 2/3에 육박하여 과반수를 훨씬 넘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⁶¹⁾ 以後 1964年 봄 韓·日國交正常化 문제를 둘러 싸고 학생데모와 야당의 반대는 치열했으며 결국 64年 6月 3日 하오 8時를 기해 서울 一圓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기에 이르렀다.⁶²⁾ 또 言論波動⁶³⁾·人革黨事件⁶⁴⁾·쿠데타事件⁶⁵⁾등으로 政局이 편할날이 없는 가운데, 67年 5月 3日 제 6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朴正熙候補가 尹潽善候補보다 136만표나 많아 무난히 대통령에 당선되었다.⁶⁶⁾ 그 후 6月 8日 7대 국회의원선거는 향연 및 금품제공 등 막대한 자금살포, 지방사업공약의 남발, 간교한 득표작전, 국무위원의 이례적인 지방출장 등으로 빚어진 공무원의 동요 및 관련개입 시비로 말미암아 유례없는 이상분위기 속에서 치루어져 결국 民主共和黨이 지역대표 103석, 전국대표 27석으로 130석을 차지하였고, 新民黨이 지역대표 27석, 전국대표 17석으로 44석을 획득하여 共和黨은 개헌선인 177석보다 무려 13석을 더 획득,⁶⁷⁾ 의회에서의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新民黨이 6·8총선거의 성격을 共和黨의 金力과 權力에 의한 완전범죄적인 不正選舉로 단정하고 院內·外를

57) 崔昌圭, 「해방 30년사」, 4권 (서울: 성문각, 1976), p. 118.

58) Ibid., p. 121.

59) Ibid., p. 156.

60) Ibid., p. 192.

61) Ibid., p. 200.

62) Ibid., p. 248.

63) Ibid., p. 262.

64) Ibid., p. 269.

65) Ibid., p. 303.

66) Ibid., p. 392.

67) Ibid., p. 398.

통해 정치적 법적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학생데모도 유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국은 점점 硬化되어 가기만 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동베를린 북한공작사건⁶⁸⁾이 발표되었으며 67년부터 북괴의 도발이 더욱 빈번해져서 68년에는 1·21사태, 프에블로호 납북사건 등이 계속하여 일어나 국민의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1969년은 71년 총선거를 2년앞둔 해로써, 1월 7일 尹致暎 민주공화당 의장서리는 기자회견에서 「祖國近代化事業의 達成이라는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우리 실정으로서는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⁶⁹⁾고 역설하면서 개헌문제를 시사하였다. 그 후 1월 10일 朴正熙大統領의 연두기자회견에서 그는 「만약에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내 임기중에는 이 헌법을 고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고 꼭 필요하다면 年末에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⁷⁰⁾고 개헌에 대한 태도를 밝혔으며, 14일 新民黨은 朴大統領의 三選改憲을 黨의 운명을 걸고 범국민적 투쟁을 벌여 기필코 이를 저지하겠다고 그들의 입장을 表明하였다. 그 후 6월 11일 제70회 국회가 개최되면서부터 與·野는 심한 대립 양상을 보였으며 金泳三議員 피습사건, 학생들의 데모 등으로 政局은 더욱 硬化되어 갔다. 이런 가운데 9월 14일 국회에서는 민주공화당 의원 78명의 이름으로 제안된 개헌안의 국민투표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안이 야당이 알지 못한 가운데 국회 별관에서 여당 단독으로 심의하여 電擊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10월 1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65.1%가 개헌에 찬성하여 개헌안은 승리하였고,⁷¹⁾ 71년 4월 27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朴正熙候補는 新民黨의 金大中候補를 95만여표 차이로 누르고⁷²⁾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이어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共和黨이 지역구에서 86석, 전국구에서 27석을 획득하여 113석을 차지했고, 新民黨이 지역구에서 65석, 전국구에서 24석을 획득하여 89석을 차지하였다.⁷³⁾ 여기서 특기할 점은 新民黨이 예상외로 강세를 보여 7대 국회의원선거 때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점인데 이것으로 보아 朴大統領의 지지기반이 의회에서 약화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의회내에서 與·野의 對立이 심화될 기미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하여 三選을 이룩한 朴大統領은 70年代에 접어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상황이 美·蘇冷戰體制에서 美·蘇·中·日로 확대된 多元化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7·4남북공동성명으로 시작된 남북대화 등 국내외의 급박한 상황변화에 직면하게 되자 72년 10월 17일 비상조치를 단행

68) Ibid., p. 406.

69) Ibid., p. 433에서 재인용.

70) Ibid.

71) Ibid., p. 454.

72) Ibid., p. 488.

73) Ibid., p. 492.

하였다. 즉 朴大統領은 현시점에서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祖國의 平和統一을 위한 남북 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북한을 능가하는 국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우리 政治體制를 비상적 방법으로 혁신하여 國力の 組織化를 기한다는 취지에서 國會의 解散, 政黨活動의 禁止 등 초헌법적인 헌법의 非常措置를 단행하는 동시에 전국에 非常戒嚴을 선포하여 憲政의 일시적 중단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10月 27日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公告된 헌법개정안(一名, 維新憲法案)은 11月 21日 국민투표에서 91.5%의 높은 찬성율을 획득하여⁷⁴⁾ 헌법개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의해 실시된 統一主體國民會議에 의한 대통령선거에서 朴正熙大統領이 단일 입후보하여 거의 만장일치로 당선되었다. 국회내에서도 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 재적 1/3이 親與的 性格을 띤 까닭에, 與黨勢力이 압도적 우세에 놓여 있었으며, 그 후 이런 현상은 계속되어 數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與黨이 국회내에서 재적의원 중 과반수 이상 즉 2/3線에 거의 육박할 수 있었다.

以上과 같은 點에서 살펴볼 때 5·16군사혁명을 통해 政權을 장악했던 정치세력도 처음의 뜻과는 달리 점차 以前과 같은 전철을 밟았다. 오히려 제3공화국에 와서는 行政府와 立法府사이의 不均衡이 自由黨政權 때보다 더욱 심각해 졌다고 할 수 있으며 立法府의 侍女化·從屬化는 벌써 60年代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여당의원이라도 정부측의 입장에 반대하면 “抗命”으로 대처했으며 야당에 대한 制裁와 彈壓도 제3공화국에 와서 더욱 철저해 졌다. 제3공화국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과거 어느 때보다 비대해졌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 1인으로서의 權力集中 現狀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3. 통치스타일

朴大統領의 스타일은 그의 군대적 경력배경과 해방 이전에 成長하고 教育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近代的 階層意識 또는 軍隊的 政治文化를 다분히 반영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군대지휘자였던 만큼 指導者道에 대해 비상한 관심과 상당한 연구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군사혁명 후 최초의 저서로서 「指導者의 道」라는 小冊子를 발간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의 스타일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그가 생각하는 指導者道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朴大統領은 진정한 指導者의 자격요건으로서 公正性과 卓越性을 들며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指導者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지도의 力量이 다른 여러사람보다도 뛰어나야만 하며 아

74) 金雲泰外, 「한국정치론」(서울: 박영사, 1982), p. 294.

올러 지도 자체가 오로지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뛰어난과 올바른이라는 가장 중대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指導者라야만 능히 다른 여러 사람들을 훌륭하고 공정하게 지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國家와 民族을 지도해야 할 政治라는 것도 요컨대 그 절대적인 근거로서 ‘正’ 즉, 올바른이란 것을 지녀야만 비로소 國家를 興하게 하고 福되게 지도할 수 있는 眞正한 政治라고 할 수 있는 것이므로 政治에 있어서도 지도자의 참된 길은 오로지 올바른에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무리 뛰어난 재간과 힘을 가졌고 아무리 높은 地位와 많은 財物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약 그에게 올바른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 才幹·力量·富貴榮達 등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自己一身으로서도 아무런 價値도 없는 似而非人間에 불과할 것입니다」⁷⁵⁾

이처럼 그는 올바른이 참된 지도의 가장 큰 본질이며 기초인데 해방 후 우리의 祖國이 줄곧 부패와 부정속에서 허덕이고 또한 우리 民族이 항상 불의와 결핍에 신음해온 것도 그 올바른을 본질로 한 참된 지도자의 길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朴大統領은 과거의 지도자가 그의 탁월한 능력이나 공정한 도덕적 자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혈통·가문같은 선천적 여건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을 강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전체적 지배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해방 후 영터리 지도자가 人의 장막 속에 가리워 국민 전체의 정상적인 희망과 여론을 알지 못하고 우리 민족의 절실한 民主的 要求를 이루어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일방적인 上意下達의 억압적인 명령만으로 통치하였기 때문에 봉건군주시대의 정치적 과오가 되풀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5·16革命은 과거의 가짜 指導者道로부터 진정한 指導者道로 탈바꿈하는 전환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인용을 음미·검토하여 볼 때 朴大統領의 指導者道觀은 李大統領의 指導者形態에 비하여 한결 더 近代的이고 民主的인 소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전통적인 신분적 차등을 철저히 不信하지만, 能力에 의한 차등·道德的 차등은 認定하는 엘리트주의자이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지도자는 대중과 유리되어 그 위에 군림하는 權威主義者나 特權階級이 아니라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동고동락하는 동지로서의 의식을 가진 者라야 한다.

75) 朴正熙, 「指導者道－혁명과정에 대하여」, 박대통령선집: No. 3 (서울: 지문각, 1970), pp. 14~16.

국민을 지도함에 있어서 친절하고 겸손하며 모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솔선수범하여 難局을 돌파하며 私를 버리고 오직 국민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숭고한 정신을 그는 가져야 한다. 지도자로서 가지는 모든 權力의 연원은 國民이다. 자기 스스로 창조한 權力도, 초인간적 존재로부터 수여된 여하한 特權도 있을 수 없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大衆에 깊이 뿌리박고 前近代의 特權意識도 버리라」⁷⁶⁾

朴大統領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자격으로서 同志意識, 判斷과 問題解決의 能力, 先見之明, 原則에 충실하고 良心的인 人物, 勇斷, 民主意識에 대한 信念을 든다.

한편 朴大統領은 軍人精神이 투철한 전형적인 軍人이기 때문에 軍隊式 行動類型이 그의 政治的 스타일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랬기 때문에 朴大統領은 외교교섭이나 연설보다는 行政指導能力, 특히 軍指揮에 뛰어난 통솔력을 가진 정치지도자였다. 그래서 그는 보다 냉철한 現實主義的 目標를 추구하기 때문에 民主主義라든가 反共과 같은 추상적인 상징조작보다는 近代化나 經濟成長의 실적을 중요시 하였다. 이런 行政家型의 지도자는 대중의 애정 인기를 독점할 수 있는 재간이나 Showmanship이 없으며 실적 이외의 대중인기문제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朴大統領의 이런 태도는 「나도 물론 인간인 이상 나라를 다스리는데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난 당대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後世史家들이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해 왔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 부럽지 않게 떳떳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난 일이 없다」⁷⁷⁾는 말에서 잘 표현되어 있다.

朴大統領은 軍 출신 정치가답게 政黨組織에 대한 태도 역시 軍隊組織에 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엇보인다.

즉 「民主共和黨의 총재로서 나는 모범적인 政黨을 만들어 볼 참입니다…… 黨內에 言爭도 없고 더구나 下剋上은 절대 허용될 수가 없지요…… 저 野黨의 꼴을 보세요, 平黨員이 黨指導者를 마구 비난하고 대들지 않아요. 내가 지도하는 民主共和黨은 완전히 規律이 서로 통일된 黨으로 만들어 볼려고 해요」⁷⁸⁾

이런 사고방식은 1969年 4月, 소위 抗命波動때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권오병 문교부장관 不信案에 동조한 일부 共和黨 의원들을 사정없이 제명, 견책 처벌한 행동에도 나타나 있으며, 또한 1971年 오치성 내무부장관 不信任決議案이 제출되었을 때 그의 지시를 어기고 야당에 동조한 新主流派 간부에게도 가차없는 처벌이 내려졌다는 데서

76) Ibid., p. 18.

77) 宋孝彬, op. cit., p. 269.

78) 尹致暎, 「民族으로 가는 길」(서울: 성문각, 1963), p. 393.

도 엿볼 수 있다. 政黨은 어느派가 장악하더라도 말썽꺼리이므로 최소규모로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이런 抗命事件으로 더욱 간절하여 진 것이라고 추측되는 것이다.⁷⁹⁾

이런 朴大統領의 통치스타일은 군인정신이 투철한 전형적인 군인이기 때문에 군대식 行動類型이 그의 정치적 영도방법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이때 나타난 權力集中으로 大統領 領導力의 強化, 迅速한 業務處理, 能率性의 強化, 政策의 作成과 執行을 하는 철저한 行政家型의 정치가이기도 하였으나 한편 祕書政治와 官僚的 權威主義의 病弊, 大統領以外 政治·行政엘리트의 倭少化와 責任回避, 國民의 政治的 無關心과 非協助主義, 維新支持勢力의 縮小 등의 現狀도 나타났다.



79) 韓昇助,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 『세대』, 1976년 4월호, pp. 258~259.

第五章 結 論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성격과 리더십 양자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좀 구체적으로, 이승만대통령과 박정희대통령 두 지도자는 어떠한 성격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그러한 여러 특징이 그들의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이대통령은 이왕조의 후예로서 양반 가문의 6대독자로 태어나 집안의 극진한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자라났다.

成長期에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크게 받음으로 해서 평등주의적이고 자연 발생적이며 변화지향적인 여성적인 세계관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가정환경의 배경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투시되기도 했으나 그로 하여금 보다 독선적이고 고집센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성격 내지는 가치관을 가지게 하였다.

한편 박대통령은 어려운 집안살림과 많은 식구때문에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 받으려면 근면과 노력과 인내로서 성실하게 행동해야 했으므로 강인한 성격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上下階層的이며 位階秩序가 정연한 남성적인 세계관을 지니게 되었다. 특히 그는 어린시절에 얻어진 성격상의 특성 위에 긴 군대생활에서의 군대적 정치문화가 덧 붙여졌다. 실로 그것은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기초를 두며 행정집행능력 특히, 군지휘에 뛰어난 통솔력을 가진 정치지도자로서, 보다 냉철한 현실주의적 목표를 추구하였고 업적이 나 실적에 더 신경을 쓴 행정가형의 정치가였다고 할 수 있다.

두 지도자는 분명 그 가정환경이나 성장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속에서 얻어진 각자의 성격상의 특성들은 거의가 비슷한 권위주의적 성격이라는 테두리속에 하나로 모을 수가 있다. 바로 이러한 성격상의 특성은 그대로 그들의 정책방향과 통치전개과정 및 통치스타일에 반영되고 있다.

먼저 이대통령의 경우 집권초기에는 국회내에서 여당의 세력이 야당의 세력보다 不利하여 국회와 행정부간의 대립이 심화되었으며 표면화되었지만 후기에는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국회내에서 자유당의 의석이 야당의 의석을 훨씬 능가하여 권력이 안정된 가운데 반공주의적 이념정향에다 외교면에 주된 관심을 쏟았다. 박대통령의 경우는 집권초기에서부터 국회내에서 민주공화당이 다수당으로서 안정된 양상을 보여 그가 정책을 立案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정치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행정면에서의 충돌은 국회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다 현실적인 근대화라는 방향으로 정책적 이념이 형성되었다.

한편 통치스타일에 있어서는 두 지도자가 공히 권위주도형의 리더십이었다는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박대통령은 사무적인 관료적 색채가 가미된 관료형 행정가였다. 이대통령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는 과제는 외면하고 헌법을 두번이나 바꾸면서 12년 동안 장기 집권하다가 4·19革命으로 많은 피를 흘리고 수 많은 희생자를 내놓고 권좌에서 물러났다. 박대통령도 이승만의 패턴을 그대로 밟아 大統領 1人 權力集中現狀은 두드러졌고 그의 執權意慾은 長期執權을 위한 維新體制로의 전환을 強行했다. 이것은 結局 反對勢力의 抵抗을 더욱 더 激裂케 하게되어 10·26의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렇듯 권위주의적인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권위주의 체제는 결국 不正腐敗로 사회를 병들게 하고 소수의 權力者側近과 追從者들에 의한 권력남용을 방치하게 되어 그것에 反對하는 抵抗勢力과의 對立 갈등을 첨예화시킴으로써 심각한 정치적불안을 초래한다. 그리고 그런 통치자가 자연적으로 죽거나 또는 살해 당할 경우에 있어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할 때 까지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된다. 이제 우리는 보다 더 냉철하게 권위주의적인 체제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정치를 실시해야 할 때이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어느 한 요인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님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다. 앞으로 보다 더 민주적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지도자의 役割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 김명훈. 「리더쉽론」. 서울 : 대왕사, 1980.
- 金雲泰. 「해방30년사」. 제 2 권. 서울 : 성문각, 1975.
- 外. 「한국정치론」. 서울 : 박영사, 1982.
- 金泰昌. 「현대정치학개론」. 서울 : 동아학습사, 1981.
- 金學俊. 「소련정치론」. 서울 : 일지사, 1976.
- 外. 「남북한관계」. 정경연구, 1975.
- 讀書新聞社編. 「한국사의 조명」. 서울 : 독서신문사, 1975.
- 로버트 A. 달. 「현대정치의 분석」. 陳德奎譯. 서울 : 학문과 지성사, 1984.
- 文英姬. 「정치적 리더쉽에 관한 연구 —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81.
- 文昌周. 「한국정치론」. 서울 : 일조각, 1965.
- 朴正熙. 「指導者道 — 혁명과정에 대하여」. 서울 : 지문각, 1970.
- 孫世一. 「李承晩과 金九」. 서울 : 일조각, 1970.
- 宋孝彬. 「가까이서 본 朴正熙大統領」. 서울 : 휘문출판사, 1977.
- 月刊中央社編. 「광복 30년 중요자료집」. 월간중앙, 1975年 1月호 부록.
- 尹致暎. 「民族으로 가는 길」. 서울 : 성문각, 1963.
- 李克燦. 「정치학」. 서울 : 법문사, 1981.
- 李相九. 「민주정치론」. 서울 : 대왕사, 1984.
- 李元淳. 「인간 李承晩」. 서울 : 신태양사, 1965.
- 林淳默外. 「政界夜話」. 서울 : 흥우출판사, 1969.
- 鄭光模. 「청와대」. 서울 : 어문각, 1967.
- 鄭牧九. 「傳記 朴正熙」. 서울 : 교육평론사, 1966.
- 鄭仁興外. 「政治學大辭典」. 서울 : 박영사, 1980.
-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대한민국정당사」. 서울 : 寶晉齋, 1973.
- 즈비그뉴 K. 브르제진스키 · 칼 J. 프리드리히. 「전체주의 독재정치론」. 崔雲芝譯. 서울 : 정림사, 1972.

- 車基璧. "4·19과도정부 및 장면정권의 意義". 「사회과학 13집」. 서울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5.
- 崔昌圭. 「해방30년사」. 제 4 권. 서울 : 성문각, 1977.
- 韓培浩. 「한국의 정치」. 서울 : 박영사, 1984.
- 韓昇助.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 「세대」. 1976년 4 월호.
- 韓貞一. 「한국정치발전론」. 서울 : 전예원, 1982.
- 許 政. 「雲南 李承晚」. 서울 : 태극출판사, 1960.
- Adorno.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 Brothers, 1950.
- Gibb, C. A. "leadership" : in Lindzey(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II, 1954.
- Lasswell, H. *Psychopathology and Politics*.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0.
- Pigors, P. *Leadership and Domination*.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53.
- Oliver, Robert T. *Syngman Rhee : The Man Behind the Myth*. New York : Dodd Mead & Co., 1954.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ors and Leaderships of The Korean Political Leaders.

— Centered on the Former Presidents, Rhee and Park. —

Kim Jung-hee

Social Studie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h Sung-Jun**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wo former Korean presidents, Syngman Rhee and Jung Hee park, specially their characters and their influence upon the leadership.

president Rhee, born as the sixth generation of only sons in the aristocratic class, grew up in the atmosphere of his families' love and cordial custody.

From childhood onward to his youth, Syngman Rhee was mainly under his mother's influence, so he got a faminine view of the world, which was equalitarian, autogenous and oriented for alteration. On the one hand, this background of his history reflected amorpatriae, but on the other, it made him dogmatic, stubborn and egoistic in understanding the world.

Former president Park, Jung Hee grew up in a large family, which made him behave in a diligent manners and with endurance to be approved of his value of existence. He was a man of strong personal character, which formed the results of his childhood experience. Military political culture was added to his personal character formed during longterm service in the army. He had executive ability, especially command ability in the army, so he was an administrator oriented politician making an effort to achieve realistic ends, and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May, 1986.

wished for pragmatic results. Two leaders were apparently different in their family environment and in experience during their adolescent. But, the common denominator of their personal character was authoritarianism. This personal character, authoritarianism, had a great influence upon their ruling style, policy at the process of enforcing that policy.

President Rhee went through a bed patch in his early presidential period, because his party was weak against the opposi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this situation,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National Assembly was abrasive. But later, two sides became a balanced power, as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verwhelmed the opposition party. After getting stability in internal power, president Syngman Rhee concerned himself with anti-communist ideology and foreign affairs. In the case of president Park Jung Hee, from his early stage of away onward, he could easily establish to enforce his policy, because the Democratic Republican party seized power in the National Assembly. In other words, there was no confrontation between him and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respect of administration except for political problems. During that time, his policy-oriented ideology focused on modernization.

Two leaders showed the same ruling style, that of authoritarian leadership. President Park was a Bureaucratic administrator. President Rhee was toppled from the throne with many victims of the April 19 Revolution. He revised the constitution twice during his 12 Year ruling period. President Park succeeded Rhee's pattern so that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president became stronger than ever and his desire for power led to the Yushin(Revitalizing Reforms)system, which resulted in long ruling period, and which flamed the resistance of the opposition forces of the dissidents. Both president Park's life and his presidential seat come to an end in 26, October, 1979. An authoritarian system cointaminates society with corruption and abuse of power by the minority brings about political disorder which is not controlled until a new leader appears.

Now, it's time for us to lead the democratic statecraft with coolheadedness, throwing away authoritarianism.

We have seen the importance of leader for our nation's destiny. Thus,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leader's function is most crucial in order to accomplish democratic development.